

심곡서원의 조영과정과 배치에 관한 연구

- 사료 및 발굴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이 승 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연구원)

이 상 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조선시대, 서원, 심곡서원, 배치, 전재후당

1. 머리말

서원(書院)은 유생의 강학과 선현의 제향을 위하여 조선중기 이후 사림에 의해 향촌에 설립된 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자치 운영기구로, 사당, 강당, 동·서재, 부속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사우(祠宇)는 강학의 기능 없이 선현의 공덕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는 기능만 수행한다. 하지만, 조선후기가 되면 사우에도 강당, 재사 등이 건립되어 서원과 사우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¹⁾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리에 소재하는 심곡서원은 조선 중종 때 사림파의 영수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다가 기묘사화(1519, 중종 14)로 희생당한 정암 조광조(1482~1519)를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다.

조광조는 1568년(선조 1)에 신원되어 문묘에 배향되고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으며, 이황의 의견에 따라 문정(文正)이란 시호를 받았다. 그 뒤 그의 학문과 덕행을 흠모하는 후학들에 의해 전국에 많은 원사(院祠)가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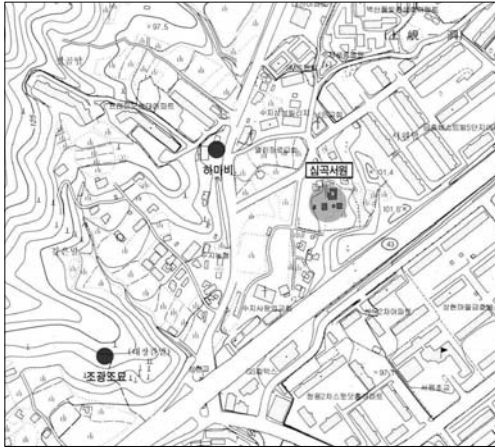
1570년에는 유배지이면서 죽음을 당한 능주에 죽수서원이 세워졌고, 1573년 그가 노닐던 도봉산에는 도봉서원이, 1605년 조광조의 묘소가 있는 용인에는 사우가, 1650년에는 사우를 인근 지역으로 옮겨 심곡서원이 세워졌으며, 1661년에는 은둔하려고 전담까지 마련했으나 가지 못한 가평에 미원서원이, 1818년에는 순천에 용강서원이 세워져 배향되었다.

용인은 조광조가 부친을 장례한 후 여막을 짓고 시묘하던 곳이며, 조광조의 묘소가 있는 곳이어서 일찍부터 서원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재력이 부족하여 건립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576년에 이르러 포은 정몽주(1337~1392)를 제향하던 용인 모현면의 충렬서원에 배향해 오다가, 1605년에 들어서 조광조의 묘소 인근에 사우를 건립하면서 충렬서원에서

* 교신저자, 이메일: lsh-skku@hanmail.net
본 논문은 『용인 심곡서원Ⅱ』에 수록된 글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현재 동·서재지는 강당 앞에 복원되어 있다. 이는 복원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에서 조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유구에 대한 해석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복원공사가 이루어지곤 하는데, 이처럼 해석과 복원이라는 과정의 선후가 뒤따른 채 진행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 이상해, 『서원(書院)』, 열화당, 2004

위패를 옮겨오게 되었고, 1650년에 이르러 ‘심곡(深谷)’이란 사액을 받고 현재의 위치에 중창되었다.



<그림 1> 용인 심곡서원 주변 지형도

심곡서원은 광고산과 형제봉에서 이어지는 마을 뒤 경사지에 동·서재가 횡철된 모습으로 서향하여 배치되어 왔다.

이에 선행연구자들은 심곡서원을 서원이 남설(濫設)되던 시기(1675~1741)의 강당 중심의 전형에서 벗어나 전당후재(前堂後齋)의 배치형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원으로 해석하거나²⁾ 기호지역에 분포한 기호학파의 서원 배치로 분류하였기도 하고³⁾, 서원남설기에 사묘 이외의 다른 건물들(동재·서재·경관고·누각 등)의 구성은 일정한 형식을 갖지 않고 편의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거나 생략된 서원⁴⁾으로 해

석하기도 하였다.

이상 심곡서원은 조광조를 제향해온 기호학파의 서원으로 1650년에 건립된 전당후재형의 배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원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사료와 최근에 이루어진 발굴조사결과⁵⁾를 중심으로 1605년 사우 건립·1650년 서원 조영 이래 현재까지의 심곡서원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배치에 관한 기존의 학설을 재검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사료를 중심으로 본 조영과정

심곡서원의 조영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으로는 이시해(李時楷, 1600~1657)가 지어 올린 「치제문(致祭文)」(1650),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중건상량문(重建上樑文)」,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지은 「강당기(講堂記)」(1673년), 이재(李穡, 1680~1746)의 「도암선생본원학규(陶菴先生本院學規)」(1747), 한규복(韓圭復)의 「중수기(重修記)」(1931)와 「중건상량문(重建上樑文)」(1933), 민병승(閔丙承, 1866~?)의 「심곡서원중건기(深谷書院重建記)」(1934) 등이 있다.⁶⁾ 민병승은 「심곡서원중건기」에서 심곡서원 관련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문헌의 증거로는 앞서 청음 김문정공(金文正公: 金尙憲)·화양노자(華陽老子: 宋時烈)·도암(陶菴) 이문정공(李文正公: 李穡) 등께서 지으신 것이 있다.⁷⁾

의 서원」,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 p.89

5) 기전문화재연구원·용인시, 『용인 심곡서원』, 2007

경기문화재연구원·용인시, 『용인 심곡서원Ⅱ』, 2010

6) 이재는 1742~1743년까지, 민병승은 1932~1936년까지, 한규복은 1936~1942년까지 심곡서원의 원장을 지냈다.

7) 文獻之徵前有者淸陰金文正公華陽老子陶菴李文正公備述之今, 민병승, 「심곡서원 중건기」, 1934

2) 이상해, 앞의 책, 열화당, 151쪽, 360쪽, 2004
김은중·주남철,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관한 연구(Ⅰ)」, 대한건축학회지, 29권, 123호, 1985

김은중·주남철, 서원건축의 배치유형 및 변천추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6호, 1991

3) 손봉균·이희봉, 「사림의 학파당쟁을 통해 본 서원건축의 재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4권, 123호, 2004

이희봉·손봉균, 「조선시대 사림의 서원건축 재해석: 기호학파 서원에의 가치부여」, 건축역사연구, 16권, 6호, 2007

4) 김동욱, 「경기도 지역 서원의 건축특성」, 『경기지역

이러한 문헌 이외에, 2004년과 2007~2008년에 걸쳐 심곡서원의 복원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발굴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조선시대 유구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 논문은 이상의 사료를 바탕으로 심곡서원의 조영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2-1. 사우 창건

심곡서원의 건립은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사사된 이후 논의되기 시작하였지만, 당시 서원을 지을 만큼 재정 형편이 되지 않아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1605년에 이르러서야 조광조가 시묘하였던 곳이면서 그가 묻힌 묘 곁에 작은 사우가 창건되었다. 이는 김상헌의 「중건상량문」, 한규복의 「심곡서원 중수기」, 민병승의 「심곡서원 중건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공론이 다시 일어 백년도 못되어 유학이 다시 흥기하자 그 학맥에 힘입어 옛 땅 중 명당을 택해 백록의 새로운 규모를 갖춘 남향한 사우를 마련하였다.⁸⁾

구성의 서쪽에 심곡이 있는데, 옛적 우리 정암 조선생께서 여묘하시던 곳이며 옷과 신발이 묻힌 곳이다. 선조 을사년(1605)에 유생들이 사원을 창건하였다.⁹⁾

을사년(1605)에 지방의 유생들이 선생의 교화와 선생의 덕에 감복하여 용인의 심곡에 원사를 세우고 봄·가을로 제향을 올렸다.¹⁰⁾

조광조의 「연보」에 의하면, 조광조는 부친

의 상이 끝난 뒤에도 선영의 묘 아래에 초당과 연못 등을 만들어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사후에 선영이 묻혀 있는 언덕에 조광조를 반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력 33년(1605) 을사 심곡서원을 선생의 묘 아래에 건립하였다.

이러한 연유에서 처음 심곡서원을 세울 때, 현 위치가 아닌 조광조의 묘 아래에 터를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이의 「정암선생 묘지명」에도 1520년에 용인 심곡리의 선영을 따라 반장한 후, 1557년에 서쪽 수백 보쯤 되는 곳에 이장하면서 부인도 부장하였으며, 1605년에 선생의 묘소 아래에 심곡서원을 건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덕 기묘(1519)년 겨울 12월 20일에 정암선생 조공께서 능성 적소에서 돌아가셨다. 이듬해 용인 심곡리에 반장하니 선영을 따른 것이다. 가정 정사년 12월 24일에 그 서쪽 수백 보쯤 되는 곳에 다시 이장하였는데 부인 이씨도 부장하였다.¹¹⁾

이상 소개한 사료를 종합하면, 창건 당시의 사우는 조광조가 시묘하던 곳, 또는 조광조의 묘 곁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지여서인지 김상헌이 「중건상량문」에서 습하고 낮은 터라고 기록한 부분은 서로 통하는 내용이 된다.

2-2. 사우 이건과 서원 중창

창건 이래 심곡서원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8) 公論復起不待百年斯文再興尙賴一脈迺卜青鳥之舊地仍恢白鹿之新規南面專祠, 김상헌, 「중건상량문」

9) 駒城之西有深谷昔我靜菴趙先生廬墓之地衣履之藏也宜廟乙巳儒生創建祠院. 한규복, 「심곡서원 중수기」, 1931

10) 乙巳邦人士服先生之教感先生之德册立院祠于龍仁之深谷春秋饗獻祠之, 민병승, 「심곡서원 중건기」, 1934

11) 正德己卯冬十二月二十日靜菴先生趙公卒于綾城謫所明年歸葬龍仁深谷里從先兆嘉靖丁巳十二月二十四日改卜其西數百步許以夫人李氏祔, 이이, 「정암집」, 「정암선생 묘지명」

황폐해졌고, 그 후 제사도 지내지 못하다가, 1650년에 사액을 받고 나서야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창하였다고 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이시해의 「치제문」과 김상헌(1570~1652)의 「중건상량문」, 송시열의 「강당기」(1673)를 통해 알 수 있다.

경영하여 중건하매 원근이 모두 성의를 모아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계획하여 낮고 습한 곳을 버리고 시원하고 높은 곳을 취하였으며, 공정은 엄격하고 제도는 바르게 하였다. 당실(堂室)에 오르면 우러르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책을 들여다보면 묻고 답하는 뜻이 그 안에 있다.¹²⁾

조정에서 이미 문묘에 중사하였으니 그 웅숭하게 보답함이 극진하였고, 지방유생들이 또 묘 곁에 사우를 세워 영(靈)을 모셨지만 강당은 미처 지을 겨를이 없었다. 그 뒤에 유생과 벼슬아치들이 합심하고 도모하여 겨우 자재를 갖추어 기해년(1659) 3월에 경영을 시작하여 신축년(1661) 2월에 마쳤으니, 장수하고 유식할 곳이 대략 갖추어졌다.¹³⁾

병자호란 당시 화재를 당하여 황폐해진 지 50년이 되었다. 박사 손공탁이 습하고 낮은 곳을 버리고 높고 탁 트인 곳으로 옮겨서 정당을 중건하였으나, 여옥은 완성하지 못하였다. 영릉 원년 경인년(1650)에 사액을 받고 이어서 강당과 임심루·산양각·문향각을 차례로 증축하였다.¹⁴⁾

12) 經營重建遠邇咸輸舍舊圖新去卑湫而就爽塲賁功程事嚴繩墨而正規模升堂室則瞻仰之懷逾觀視簡策則答問之義斯在, 김상헌, 「중건상량문」

13) 朝廷既從祀文廟則其崇報也極矣而京外章甫又卽丘墓之傍建祠受靈而講堂則未遑也其後章甫縉紳又合謀鳩材經始於己亥三月訖功於辛丑二月藏修遊息之所於是略備矣, 송시열, 『송자대전』, 「강당기」, 1673

14) 歿之後自本朝已廢食夫子廟庭穆陵乙巳邦人士服先生之教感先生之德卽立院祠于龍仁之深谷春秋饗獻祠之厄丙子兵燹爲鞠莽者五十年博士孫公倬去卑湫就爽塲重建正堂

위의 기문과 상량문을 통해 볼 때, 1650년에 현재의 위치로 서원이 중창된 이래 강당이 건립된 것은 9년 뒤의 일이다. 강당은 1659년 3월에야 착공되어 1661년 2월에 준공된 것이다. 이는 1605년 사우가 건립된 후 44년만의 일로, 이후 여타의 건물들이 건립되면서 서원 제도를 갖추어 나가게 된다.

2-3. 서원 개수

심곡서원에는 많은 문헌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6·25전쟁 때 제반 문헌이 1차 탕실되고, 1987년과 1993년에 걸쳐 많은 양의 서적과 목판본 등이 도난당해 현재 『정암집』 외에 몇 십권만 전해진다. 이러한 사정은 서원이 중창된 이래 18~19세기에 이르는 200여 년간의 영건기록은 찾아보기 어렵게 한다.

그런데, 서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문헌이 탕실되거나 도난당하기전에 지은 한규복의 「중수기」(1931)와 민병승의 「심곡서원 중건기」(1934)에도 이 시기의 중수 및 개·보수 기록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에 심곡서원이 중창된 이후 몇 백년 동안 원래의 모습을 유지해 왔는지, 후대의 제2, 제3의 중창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규복과 민병승의 기문 내용을 보면 16~17세기 문헌에 나오는 서원의 연혁이나 영건기록은 인용되고 있으나, 18~19세기에 이루어진 서원 건축물의 변화는 달리 거론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시기 제2, 제3의 중창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심곡서원은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훼손되지 않고 존속된 47원사 중의 하나이다. 민병승의 「심곡서원

而餘屋未完寧陵元年庚寅賜院繼繼以講堂臨深樓山仰閣聞香閣次第增築, 민병승, 「심곡서원 중건기」, 1934

중건기」에 보면, 1933년에 서원의 대지를 돌우어 기반을 높이고, 정당은 개건하면서 당에 오르는 계단도 높였으며, 문도 다시 내고, 강당과 부엌, 욕실 등도 수리하거나 건립하는 등 대대적인 개건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동지들과 도모하여 모두 분주하게 종사하여 재물과 인력을 서로 도와 계유년(1933) 4월에 일을 시작하여 윤4월 30일에 일을 마쳤다. 정당을 개건하고 내삼문에서 외삼문까지 비가 새는 것은 보수하고 기울어진 것은 바로 세웠으며, 부식되어 무너진 것은 새롭게 단장하였다. 당에 오르는 계단을 높인 형상이 아득히 송대의 높음과 같으며, 찬란히 북두성이 하늘에 빛남과 같도다!

이번 역사에서는 도리를 늘려 그 제도를 넓히고 문도 다시 내고 대지를 돌우어 기반도 높였다. 학업을 연마하는 관(館, 강당)과 부엌[庖], 욕실[溥]까지 높고 환하게 하여 옛 규모를 찾았다.¹⁵⁾

그런데, 심곡서원은 20세기에 들어서 개건되거나 정비되면서 서원의 옛 모습을 잃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민병승의 「심곡서원 중건기」와 정비현황(표 1)¹⁶⁾에서 확인된다.

심곡서원의 이러한 변화 내용은 최근에 실시된 발굴조사로 옛 모습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는 외삼문과 강당 사이의 터와

그 주변의 담장 일대에 이루어졌다.

발굴의 가장 큰 성과로는 강당인 일소당 앞 좌우에 동·서재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일대의 변화는 원장의 증언과 보수공사 시 발견된 「심곡서원도」(그림 2)를 통해 확인되었다. 치사재·강당·동·서재 내부는 1953년 4월에 심곡학원을 설립하고 문정중학교를 개교하면서 개조되어 사용되었고,¹⁷⁾ 그후 문정중학교 신축 교사 2동을 서원 경내에 건립하는 과정에서 동·서재가 철거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대지를 정리하면서 심곡서원의 원래 모습은 크게 손실되었다고 한다.

[표 1] 심곡서원 정비 현황

공사 년도	주요 내용
1953년	상현리 203번지에 심곡학원을 설립하고 문정중학교를 개교하여 治事齋, 講堂, 東·西齋 내부를 개조하여 사용, 이후 東·西齋를 철거하고 교실 2동 신축
1958년	문정중학교 교사를 수지면 풍덕천리 105번지로 이전하면서 신축교사 2동도 이전
1974년	일소당 보수, 고직사 철거, 내·외삼문 보수, 외곽담장 75m, 사당 단청
1975년	담장 65m 신축, 서고 1동 보수, 홍살문·외삼문 복원
1977년	담장 52.5m 해체 복원
1981년	장서각 중수(1920년대 창건), 현판(1984년)
1982년	서무·사당 보수, 계단 해체 보수
1986년	일소당 고막이·기단 보수, 외삼문 단청
1988년	강당·장서각 보수
1989년	치사재 지붕 보수
1991년	연지 복원공사 추진 중 중단
1992년	사당 기와 고르기, 강당 창호 보수
1994년	연지 복원 공사 재추진하여 완성
1996년	일소당·장서각·내삼문 보수
1996년	치사재 내부 수리공사
1997년	사우와 외삼문 앞 계단 좌우 석축 공사
1997년	일소당·장서각·내삼문 보수
1998년	외삼문 앞 석축 공사
1998년	외삼문·내삼문 단청, 협문·사당 배수로 보수
1998년	사당·강당 실측
2000년	고직사 개보수
2004년	담장 신축, 일소당 기와 보수
2008년	동·서재 복원공사

15) 爰謀同志罔不□走從事以費以力迭相攸助庀事於癸酉四月訖工於劫月三十日改建正堂自內三門至外三門漏者補之邪傾者正之朽壞者新之裁正方隅崇峻堂階像設如在邈乎嵩岱之峻極欄若星斗之麗天。是役也增棟以廣其制儀門改作增土以高其基肄業之館庖湫之室巍然頽還舊觀, 민병승, 「심곡서원 중건기」, 1934

16) 심곡서원, 「재단법인조사」, 1961
 삼성건축설계사무소, 「용인군 심곡서원 보수공사」, 1974
 전일기업주식회사, 「용인군 심곡서원 보수공사」, 1974
 태광건축연구소, 「심곡서원 보수공사」, 1982
 태광건축연구소, 「심곡서원 및 양지향교 보수공사」, 1986
 심곡서원편, 「심곡서원지」, 2002
 경기도, 「경기도지정문화재실측조사보고서」, 1999

17) 심곡서원 편, 위의 책, 73쪽, 89쪽, 2002

1954년에 촬영된 문정중학교 제1회 졸업사진(사진 6)은 이 시기 심곡서원의 변화 모습을 추정케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6·25전쟁 후 일소당과 외삼문 등 건물은 남아있으나, 일소당은 문창이 개조되어 학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유리가 끼인 창호로 바뀌었고, 일소당과 외삼문 사이에 있어야 할 동·서재는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며, 담장도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72년에 심곡서원이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 7호로 지정되자 1974년 이래로 주요 건물을 비롯하여 축대와 담장, 연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분의 해체보수·정비를 거치게 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강당과 외삼문 사이에 실시된 발굴조사지역 내에는 옛 유구의 기초부가 거의 파괴되고 그 흔적만 남은 상태가 되었다.

3. 발굴 및 기타 자료로 본 주요 건물의 위치 및 편년

이 장에서는 두 차례 이루어진 발굴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심곡서원의 주요 건물지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발굴조사는 동·서재의 존재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 복원정비할 목적에서 경기문화재단연구원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조사지역은 일소당 앞마당과 그 담장 밖 일부지역에 한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유구만 노출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유구들은 다른 자료들을 보충하여 살펴보았다.

조사지역 내 층위는 현재 경작토로 복토된 표토층(I 층), 최근 심곡서원 정비 및 신축 교사 축조로 인해 교란 및 복토가 이루어진 층(II 층), 후대 유구층(III층-남쪽 담장지), 선대 유구층(IV층-동·서재지, 북쪽 담장지, 집석유구), 기반토층(V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지역은 심곡서원의 정비가 이루어지면

서 교란되어 안정된 층위에서 출토된 유물이 적고, 유구가 노출된 III층과 IV층에서 조선후기의 기와, 도기와 자기가 출토되었다.

3-1. 사당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로 전면 퇴칸은 수장 없이 개방되어 있다.

앞서 심곡서원의 영건과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작은 사우로 시작한 이래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황폐해져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점차 사당과 강당을 갖춘 서원제도를 구비해 간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세워져 있는 사당은 별도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1650년 중창 당시의 건물인지 알 수 없으나, 1933년의 개건 공사시 당에 오르는 계단을 높였으며, 1997년에 사우와 외삼문 앞계단의 좌우 석축 공사와 1998년에 사당 실측이 이루어진 정도여서 큰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2. 강당

강당인 일소당(日昭堂)에는 현재 3개의 현판이 걸려있다. 우선 외부 정면 중앙에는 ‘日昭堂’(사진 4)이라는 현판이, 내부 대량 위에는 ‘講堂’이라는 현판이, 내부 측면도리에는 ‘山仰齋’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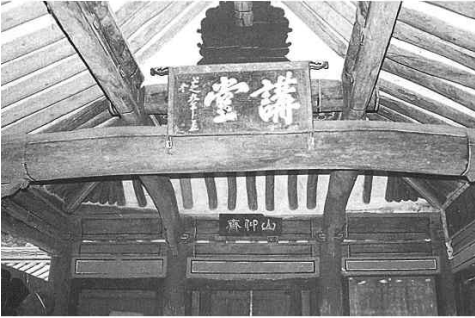
이 가운데 ‘일소당’ 당호는 조광조가 기묘사화 때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은 후 남긴 마지막 시구에서 따온 것이라 하는데,¹⁸⁾ 현판의 서자(書者)와 제작 시기는 미상이다.

‘강당’ 현판은 1785년에 제작한 것으로 서자인 김종수(金鐘秀)의 낙관이 찍혀 있다.

이처럼 두 개의 현판이 남아있다는 것은 강당 중창이 최소한 한 번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18) 愛君如愛父 憂國如憂家 白日臨下土 昭昭照丹衷,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1519) 12월 16일

강당 내부에 걸려있는 ‘산양재’는 민병승의 「심곡서원 중건기」에 나오는 서원의 누각인 ‘산양각’과 이름이 같으나, ‘재(齋)’와 ‘각(閣)’은 그 용도가 엄연히 다르므로 동일한 건물의 현판으로 보기 어렵다.



<사진 1> 일소당 내부 현판
(자료: 경기도, 앞의 보고서, 1999)



<사진 2> 일소당 앞 아궁이 내부 조사 후 근경



<사진 3> 일소당 기단(상-1974년, 하-2004년)
(자료: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앞의 보고서, 2007)

이는 도산서원의 강학공간인 전교당이 대청과 원장이 기거하던 한존재(閑存齋)로 구성된 것처럼, 심곡서원의 ‘산양재’는 강당을 구성하는 온돌방의 당호였을 가능성도 있다.

2004년 발굴조사시 일소당 전면 계단석 북쪽에서 소토 흔적과 건물지의 아궁이로 추정되는 유구가 남아있어 이전 강당의 온돌방과 관련된 흔적으로 추정된 바 있다(사진 2).

실제로 서원 강당은 일반적으로 온돌방과 마루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마루(정면 3칸, 측면 3칸)로만 구성된 강당 이전의 강당지 아궁이로 추정되며, 뒤에 언급할 동·서재지(1·2차)와 동일한 층위상에 위치하며 배치축도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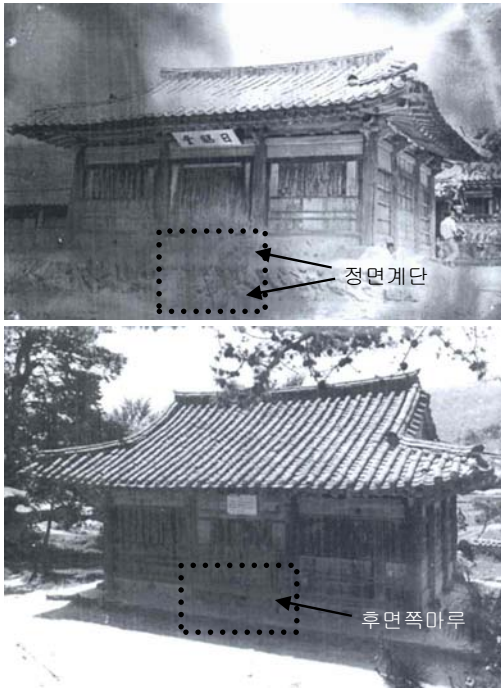
이밖에 2004년 발굴조사지역인 일소당 정면 기단 하부에서는 옛 강당지의 흔적 외에도 현재의 강당 기단이 해체 정비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3).

곧, 옛 강당지는 근래 복원 정비(표 1)로 인해 상당 부분 유실되어 소토부와 유구 일부만 남아 일소당 하부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기단은 1999년 이후 해체 복원된 기단으로, 그 하부에는 1999년 실측조사 당시의 기단(1974년도에 보수된 기단)을 헐고 아래한 단만 비슷한 느낌으로 복원한 후(2004년도에 하부에서 노출된 기단) 그 위에 지금의 기단 모습으로 해체 복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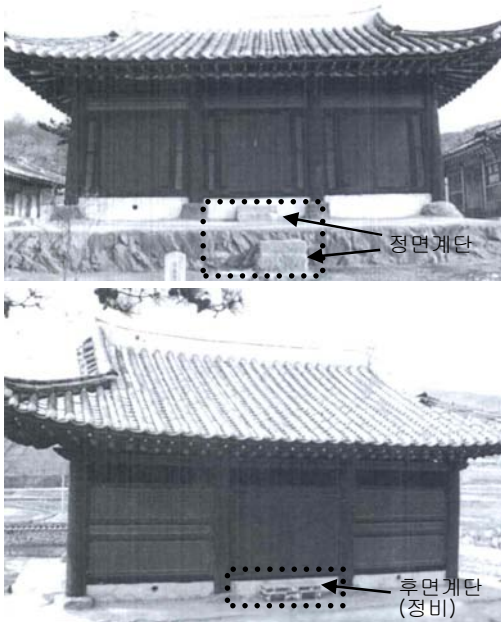
1974년에 보고¹⁹⁾된 기단(사진 4·5)도 일반적인 막돌쌓기법이 아닌 불규칙한 크기의 자연석을 빗썸아 축조한 점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때 증창되면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강당(사진 4·5)을 보면, 보수전에는 계단석이 전면에만 2단 있고, 후면에는 쪽마루가 덧대어져 있었는데, 보수후 전·후면 모두 계단석이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19) 전일기업주식회사, 앞의 보고서, 1974



<사진 4> 1974년 일소당 보수전 정면·후면 모습



<사진 5> 1974년 일소당 보수후 정면·후면 모습

1974년 10월 16일에 착공된 보수 공사 도중 『심곡서원지』가 있는 것이 알려져, 서원지에 수록된 「심곡서원도(深谷書院圖)」(그림 2)에 의한 원형을 찾기 위하여 일소당 판벽을 판문으로 변경 시공하고자 설계 변경 승인 신청(1974.11.16)을 내고 승인(1974.11.29)을 받아 1998년 실측조사 당시 모습으로 보수되었다.

그런데 이 「심곡서원도」의 제작연대는 현재 확인할 수가 없다.

이 그림은 1974년 보수공사 문건에 사진 1장으로 찍혀 실려 있을 뿐 제작연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2002년에 새로이 간행된 『심곡서원지』에도 그 내용이 실려 있지 않고, 현 서원 관계자들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1987년과 1993년에 여러 서적이 도난²⁰⁾되었을 당시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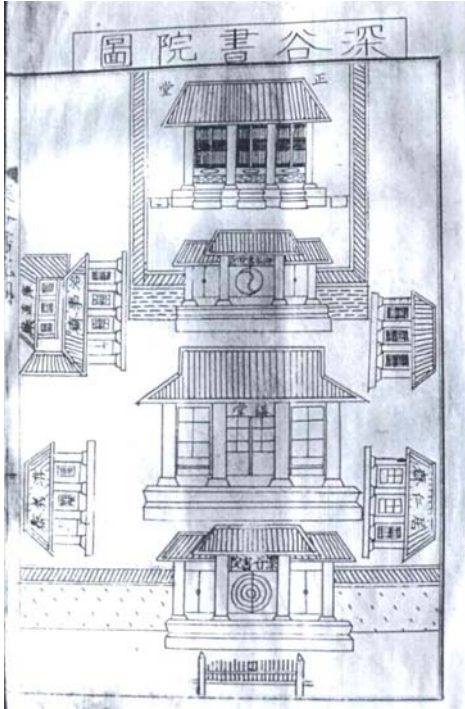
다만 「심곡서원도」(그림 2)에 그려진 강당의 문창이 1954년 문정중학교 1회 졸업사진(사진 6) 뒷배경으로 보이는 일소당의 개조된 문창과 상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무렵 간행된 서원지로 추정된다.

이 그림에는 1950년대초까지도 강당과 외삼문 사이에 재사인 거인재(居仁齋)와 유의재(游義齋)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서원 관계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곧, 치사재·강당·동·서재 내부는 1953년 4월에 심곡학원을 설립하고 문정중학교를 개교 하면서 개조되어 사용되었고,²¹⁾ 그 후 문정중학교 신축 교사 2동을 서원 경내에 건립하는 과정에서 동·서재가 철거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대지를 정리하면서 심곡서원의 원래 모습은 크게 손실되었다고 한다.

20) 1987년에 47종 399책이 도난당했고, 1993년에는 서적과 목판본 등 350여 권이 도난당해 현재 『정암집』 외에 몇 십권만 전한다.

21) 심곡서원 편, 앞의 책, 73쪽, 89쪽, 2002



<그림 2> 「심곡서원도(深谷書院圖)」



<사진 6> 1954년 심곡서원 모습
(자료 출처: 심곡서원 제공, 문정중학교 제1회 졸업사진, 문창이 개조되고, 전면 출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강당인 일소당은 1950년대초까지는 외삼문을 통해 주진입이 이루어졌고, 강당의 앞 공간이 동·서재와

함께 중심영역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동·서재가 훼손되고, 고직사의 일부였던 치사재가 재실 용도로 점차 활용되면서 강당의 주진입과 중심공간이 강당 후면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3-3. 동재지[居仁齋址]

동재지는 최근에 이루어진 연못지 및 담장지 정비(표 1)로 극심하게 훼손됨에 따라 기단석렬 2기만 일부 확인되어 전체 규모나 평면 구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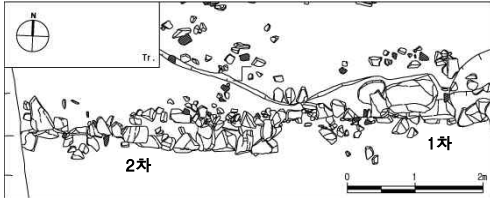
다만 앞서 이야기한 「심곡서원도」(그림 2)를 통해 동재인 거인재(居仁齋)와 서재인 유의재(游義齋)가 1950년대 초까지만도 강당과 외삼문 사이에 병치되어 있었고, 당시 정면 3칸이었으며, 1953년 심곡학원을 설립하여 문정중학교를 개교하면서 강당과 더불어 문창이 일부 개조되어 교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굴조사결과 토층 및 유구,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17~18세기에 한 차례의 중건이 이루어진 건물지(1~2차 건물지)로 추정되며, 이들 유구 아래에는 더 이상의 문화층이나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1차 건물지는 막돌허튼층쌓기로 조성된 1~2단의 기단석렬이 약 3.3m에 걸쳐 남아있다.

2차 건물지는 1차 건물지의 기단석렬 바깥쪽으로 약 75cm 정도 나와 좀 더 큰 자연석으로 기단을 조성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기단석은 1~2단, 길이는 4m 정도이다.

이 건물지의 중복된 기단석렬의 형태는 1차 조사시 발굴된 축대 및 담장렬(현 조사 후 종합검토해 볼 때 1~2차 서재지로 추정)과 유사하며 축도 연관성을 띠고 있어 이와 대응되는 동재지로 추정되나, 1·2차 건물지 모두 후대 연못지 및 담장지 정비공사로 기단 내부 및 초석이 상당 부분 파괴되어 정확한 규모와



<그림 3> 동재지(1·2차) 평면도
(초석은 최근 정비로 파괴, 두 차례에 걸친 기단 석렬만 남음)



<사진 7> 동재지 발굴 전·후 전경(W→E)
(左: 최근 연못·담장 정비공사 후 복토된 전경, 右: 초석은 유실되고 두 차례 기단석렬만 남음)

평면구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출토유물로는 17~18세기의 대접 및 접시류를 비롯한 각종 백자류와 도기편, 창해파문 및 집선문 수키와와 무문 암키와이 출토되었으며, 유물의 출토양상으로 볼 때 1차 건물지와 2차 건물지간의 시기차는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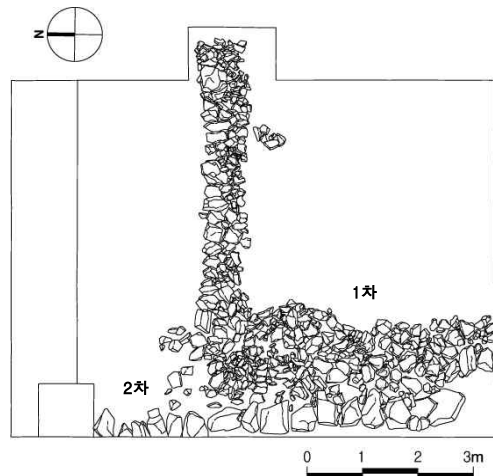
3-4. 서재지[游義齋址]

서재지도 동재지와 마찬가지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심곡서원도」(그림 2) 뿐이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일부 유구가 드러났다.

일소당 전면 남쪽에는 서재지의 기단석렬이 증복되어 노출되었으며, 초석은 유실되었다.

1차 발굴조사 당시 석재의 크기와 배치형태를 감안하여 강당 앞에서 노출된 동서 방향 석렬은 담장지로, 이와 거의 직교하는 남북 방향 석렬은 축대로 추정하였으나²²⁾, 이들은 동재지와 동일한 층위상에 위치하였고, 훼손 및 여러 차례 정비(표 1)로 인해 상당 부분 훼손되어 기단열만 확인되는 양상이 동일하며, 추정 강당지를 사이에 두고 직교하는 축선상에 마당을 바라보고 병치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서재지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유구를 1·2차 서재지로 추정하는 이유는 당시 1차 발굴조사 당시 조사면적이 협소하고 복토로 인해 상당부분 파괴된 상태에서 유구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으나, 2차 발굴조사를 통해 담장지 밖까지 조사된 결과 동재지와 마주 보고 강당 전면 마당을 둘러싸고 위치한 점, 한쪽면을 맞춘 석렬 뒤로 작은 할석이 채워져 있는 형태는 양쪽



<그림 4> 서재지(1·2차) 평면도
(일소당·외삼문 보수 및 담장 신축과정에서 상당 부분 파괴, 두 차례에 걸친 기단석렬만 남음-토층상 기단석렬 상면까지 최근 복토층 확인)

22) 기전문화재연구원·용인시, 앞의 보고서, 26~32쪽, 2007

면을 맞추고 속채움하는 담장지의 일반적인 축조방식에 맞지 않으므로 기단석렬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3-5. 기타 건축물과 집석유구

심곡서원의 사당, 강당, 동·서재를 제외한 기타 건축물에 관한 기록으로는 민병승의 「중건기」를 참고할 만하다.

이 기문에는 1650년 사액을 받은 이래 강당이 건립되고 이후에 임심각, 산양각, 문향각 등이 차례로 건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기타 건축물의 건립연대나 위치, 구조 등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는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이 오래되어 비바람에 집이 훼손되어 버티기에도 힘들더니, 마침내 임심(臨深)·산양(山仰)·문향(聞香) 등의 누각이 끝내 철거되었으나 능히 경영되지 못하였다.²³⁾

1974년 보수공사 문건(1974. 07. 12)을 보면, “그간 관리 소홀로 고직사의 벽체 부분과 지붕의 기와 및 양벽 등이 탈락되었으며 부식된 기둥은 15도 각도로 기울어져 도괴 직전에 있는 바 본도 예산 형평상 보수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본 문화재 보존상 필요한 건물이 아니므로 철거하여 주위를 정화하고자 한다”는 보수공사 설계승인 신청 공문을 볼 수 있다. 당시 고직사의 현황은 건평 25.47평(84.06㎡)인 한식 목조기와 합각지붕 백골집으로 건축연대는 약 50년 전에 건축되었으며 철거전 사진(사진 8)이 첨부되어 있다.

이 사진은 일소당쪽에서 치사재와 고직사를 바라보고 찍은 것인데, 이후 1974년도 준공사진과 1982년도 보수공사 배치도에서 치사재가 원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물은 철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2차 발굴조사 당시 북쪽 담장지에 인접하여 집석 유구가 발굴되었다.

유구는 20~30cm 크기의 할석들이 크게 두 개의 군으로 나뉘어져 방형을 이루며 모여 있어 건물지의 기초부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있는 유구의 규모는 길이 약 4m, 너비 약 2m이다. 토층상 북쪽 담장지보다 일찍 조성되었으나 큰 시기차는 보이지 않는다. 집석 유구 상면과 북쪽 담장지 사이에서 다량의 기와와 백자제기·대집, 동이·호 등이 출토되었다.



<사진 8> 1974년 고직사 철거전 모습

3-6. 담장지

기문을 통해 서원의 경내를 구획하고 공간을 분할해 주는 담장에 관한 내용을 일부 찾을 수 있다.

비록 오래되었지만 새롭게 단장하여 깨끗하게 이 서원을 중건하였으니, (심곡이란) 두 글자의 현판은 찬란하고 몇 척이나 되는 담장은 우뚝하도다.²⁴⁾

담장의 둘레와 계단의 배열, 도로 교량까지 모두 수선하였다.²⁵⁾

24) 雖舊維新矣焉是院之重建煌煌二字之額巍巍數仞之墻. 한규복, 「심곡서원 중건상량문」, 1933

25) 至墉垣之環繞塔序之布列道路梁無不繕修, 민병승, 「심곡서원 중건기」, 1934

23) 歲月滋久風雨寒屋因於撐拄臨深山仰聞香樓閣竟乃撤而未克經始, 민병승, 「심곡서원 중건기」, 1934

발굴조사결과상으로는 조사지역이 극히 좁아 서원 전체의 외곽 경계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지역 내 확인된 담장지로 볼 때, 현 담장지는 이전 시기의 담장지보다 서원 안쪽으로 둘러 정비(표 1)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담장 역시 중창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최근에 정비되면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토층 및 위치상으로 볼 때, 북쪽 담장지는 서재지(2차)와 같은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남쪽 담장지는 동재지(2차)가 멸실된 후 복토된 대지상에 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담장지는 축조방법상으로도 차이나나 같은 시기에 조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북쪽 담장지는 지대석을 깔아주고 15~20cm 정도 퇴물려 쌓은 후 양단은 면맞춤하고 내부는 소형할석으로 채운 반면, 남쪽 담장지는 자연석 2매로 별도의 속채움 없이 양단 면맞춤하여 축조하였다.



<사진 9> 북쪽 담장지와 남쪽 담장지 전경

3-7. 출토유물의 편년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심곡서원은 17세기를 중심으로 조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조영을 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수키와는 미구기와로 등분양은 창해파문이 많고 복합집원문, 유사어골문, 선문, 기하문과 차륜문이 복합된 문양이 소량 출토되었다. 이와 달리 암키와의 등분양은 대부분이 무문으로, 문양과 수량에서 수키와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이 특이하다.

평기와만 출토되었을 뿐 막새는 한 점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관련 유구는 소규모의 간소한 건물지로 여러 차례의 지붕 수리시 주로 수키와를 수습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는 명문이 새겨져 있지 않은 조선시대 백자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조선청자편과 녹갈유 자기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기종은 대접, 접시, 잔, 제기, 병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는데, 그 중 대접과 접시가 가장 많고, 제기는 소량 출토되었다.

백자의 굵은 17~18세기에 성행한 오목굽과 15세기 후반경부터 19세기까지 사용된 수직굽이 가장 많고, 대부분 굵은 모래로 굵받침을 하였다. 청자는 암록색 청자유가 시유된 17세기 조선청자의 모습을 보인다.

4. 서원건축의 성립과 배치 변화

이상의 사료와 발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더불어 심곡서원의 배치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심곡서원은 1950년, 1987년, 1993년에 걸쳐 전쟁과 도난으로 많은 서적이 유실되었으며, 남아있는 사료 가운데 동·서재와 관련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1543년 소수서원이 최초로 사액된 이래 숙종대(1674~1720년)에 이르면 서원은 전국에 300여 개소(사우 포함)나 건립되며 사액된 서원만도 105개소가 된다. 그러나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47개소만 남고 철폐되었으

며, 대원군의 실권 이후 일부 복설되거나, 일제강점기와 전란을 거치면서 황폐해졌고, 1960년대 이후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나 문중에 의해 상당한 서원들이 확장·복원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원에 관한 연구는 현황을 통해 조선시대 서원의 모습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는데, 심곡서원의 동·서재 위치에 대한 해석이 바로 그러한 예 중의 하나에 속한다.

심곡서원은 동·서재가 없는 제향 위주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서원으로 해석되거나, 강당과 사당 사이에 위치한 치사재와 장서각을 동·서재의 역할을 했던 건물로 봄에 따라 전당후재 형식의 서원으로 해석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1974년 보수공사설계도면에는 현재의 고직사와 치사재를 합쳐 ‘취사재’라고 표기하면서 고직사를 당시 철거대상 건물로 언급하고 있고, 1982년 보수공사도면에서는 치사재는 요사채로, 장서각은 서당으로, 일소당은 명륜당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그후 심곡서원의 배치형식을 해석하는데 잘못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장서각을 동재로, 치사재를 고사(庫舍)로, 서재는 생략된 것으로(그림 5)²⁶⁾, 혹은 장서각과 재실로(그림 6)²⁷⁾, 장서각과 고직사(그림 7)²⁸⁾로 도면에 표기하였는가 하면, 심곡서원을 동·서재가 없고 그 자리에 장서각과 관리사가 있는 형식으로 보면서, 이를 제향 위주로 서원의 성격이 바뀌고 있던 시기에 세워졌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는가 하면²⁹⁾, 기호지역에 분

포한 전당후재형의 서원 배치로 학파간의 ‘다름’의 산물로 해석한³⁰⁾ 예들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현 장서각은 1981년에 중수된 건물로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나 전언에 따르면 1920년에 창건) 1984년에 지금의 현판이 걸리면서 장서각이라 불리게 되었다. 치사재 또한 근래에 조성된 고직사의 바깥체에 해당되는 건물로 상당 부분 개수되었으며, 일소당 후면 마당으로 개방되어 현재 서예강좌 등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1974년 보수공사 당시 발견된 「심곡서원도」(그림 2)에는 강당과 외삼문 사이에 재사인 거인재와 유의재가 있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953년 개교 이래 강당·치사재와 더불어 문창을 개조하여 교사로 사용하였다가 신축교사 2동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동·서재를 해체하여 철거하고 대지를 정리하면서 크게 손실되어 터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1954년 문정중학교 제1회 졸업사진(사진 6)에서 확인된다.

이후 1957년에 이르러 심곡서원에 지은 신축교사 2동(용인군 수지면 상현리 203번지)은 문정중학교의 위치를 옮기면서 수지면 풍덕천리 105번지로 이전하였다.³¹⁾

따라서 현 장서각과 치사재는 동·서재와 무관한 건물이므로 전당후재형 배치를 보여주는 서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해석상의 오류는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곧 「심곡서원도」(그림 2)에서 보이는 동·서재지의 위치에서 강당지와 더불어 동·서재지로 추정되는 기반석렬 및 기초부가 발굴되었고, 여기서 조선후기에 주로 출토되는 창해파문 및 차륜문 수키와와 17~18세기에 성행한

26) 김은중,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7~79쪽, 1984

27) 이진희, 「조선시대 서원의 입지 특성 및 조경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의 서원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4~5쪽, 1992

28) 이상해, 앞의 책, 열화당, 150쪽, 2004

29) 이상해, 위의 책, 열화당, 151쪽, 359~360쪽, 2004

30) 이희봉·손봉균, 앞의 논문, 건축역사연구, 16권, 6호, 128~129쪽, 138~139쪽, 2007

31) 심곡서원, 「재단법인조서」, 1961, 「문정중학교 학칙(위치) 변경 인가신청의 건」, 1958

나와 있어, 선대 강당 및 동·서재가 배치된 중심축이 북쪽으로 좀 더 틀어져 배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 맺음말

심곡서원은 1605년에 작은 사우에서 출발하였으며,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화재를 입어 황폐해졌다. 1650년에 이르러 사액을 받고 나서야 현재의 위치로 자리를 옮겨 정당만 중창하고 나머지 건물은 마련하지 못하다가, 1659년 3월에야 강당을 착공하여 1661년 2월에 준공되었다. 이후 여타의 건물들이 건립되면서 서원제도를 갖추어 나갔다.

조선시대 이후 1933년에는 서원의 대지를 돌우어 기반을 높이고, 정당·강당·문·기타 건물 등의 대대적인 개건이 이루어졌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1953년에 문정중학교 신축교사 2동을 건립하면서 동·서재를 철거하고 대지를 정리하면서 심곡서원의 서원제도는 크게 손실되었다. 그 후 담장지와 연못 정비 등으로 서원 경내가 상당 부분 파괴되어 기초부 일부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소당 전면 일부 지역(그림 8 참조)에 걸쳐 이루어진 발굴조사는 17~18세기에 건립된 옛 강당지와 동·서재지, 담장지의 기초부와 기단석렬 일부를 보여주는 성과를 거두었고, 1974년 보수정비공사 당시 발견된 「심곡서원도」(그림 2)와 보수전·후 사진은 동·서재지의 원 위치는 물론 강당의 주진입과 서원의 중심공간이 강당 전면에서 후면으로 바뀌게 된 변화를 설명해 줌에 따라, 심곡서원은 기존의 주장(전당후재형)과는 달리 전재후당형 배치를 한 서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원 배치가 나오게 된 데에는 현재 위치에 심곡서원이 조영되던 시점이 선행연구

에서 이야기되어온 서원남설기(1675~1741)보다 앞선 시기(1650년)에 중창된 것으로, 강당 중심의 서원건축 성립시기(1568~1674)의 연속 선상에 있으며, 중창 당시 정당만 중건되고 강당과 여타의 건물들이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 차례로 건립된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껏 서원배치는 대개 처음부터 주요 건축물들이 모두 갖춰진 하나의 전체배치로 인식되어, 시대적 상황이나 학파에 따라 일정한 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심곡서원의 경우처럼 조영 당시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점차 서원 제도를 갖추어 나가거나 이후 변화를 겪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곧 많은 서원들이 시대적 상황이나 지역, 학파 등의 영향은 받지만, 창건 당시부터 전체배치가 계획되거나 학파에 따라 특징지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건축물들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각기 다른 상황과 여건 속에서 변화를 갖으며 조영되기 때문에, 개별 서원에 관한 연구는 물론 더 나아가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전개과정을 연구하는 데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과 고증이 뒤따라야 함을 보여준다.

심곡서원도 발굴조사가 일소당 전면 일부 지역에 한하여 이루어져, 기타 건물들의 구성 및 전체배치에 대한 해석의 한계는 남아있으므로, 향후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와 더 많은 사료의 발굴을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심곡서원 편, 『심곡서원지』, 2002
2. 이상해, 『서원』, 열화당, 2004
3. 경기도,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1999

86 논문

4.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 『경기지역의 서원』, 2004
5. 기전문화재단연구원·용인시, 『용인 심곡서원』, 2007
6. 경기문화재단연구원·용인시, 『용인 심곡서원Ⅱ』, 2010
7. 심곡서원, 「재단법인조서」, 1961
8. 삼성건축설계사무소, 「용인군 심곡서원 보수공사」, 1974
9. 전일기업주식회사, 「용인군 심곡서원 보수공사」, 1974
10. 태광건축연구소, 「심곡서원 보수공사」, 1982
11. 이희봉·손봉균, 「조선시대 사림의 서원 건축 재해석: 기호학과 서원에의 가치부여」, 건축역사연구 16권, 6호, 2007

접수(2010. 2. 14)

수정(1차: 2010. 4. 10, 2차: 2010. 5. 2

3차: 2010. 5. 4)

계재확정(2010. 5. 5)

On the Site Plan and History of Simgok seowon Confucian Academy

Lee, Seung-Yeon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Researcher, GyeonGi Institute of Cultural Properies)

Lee, Sang-Ha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Seowon was a new type of private academy established by a class landed Confucian scholars known as *sarim*. During Joseon dynasty, *seowon* had dual functions as a shrine and a place of learning. The site plan of *seowon* appeared mainly two types of site plan according to the indications of the age and school.

This paper was done to analyze the site plan and construction history of Simgok seowon with historical materials and excavation investigation result.

Simgok seowon is dedicated to Jo Gwang-jo(1482~1519). This private Confucian academy was founded in 1605 as a small shrine, which was destroyed in 1636. Thereafter, when the shrine received a royal warrant naming as *Simgok seowon* in 1650, the new site for the *seowon* was chosen, which is currently located in Gyeonggi-do Yongin-si Sanghyeon-ri 203. Since then, buildings of Simgok seowon was constructed and repaired couple of times.

Through the investigation, it was found that the site plan of Simgok seowon was originally a type of '*jeonjaehudang*', that is, dormitory building between the lecture hall and the outer gate, or dormitory building is in front and lecture hall is in behind.

Keywords : Joseon dynasty, seowon, Simgok seowon, site plan, *jeonjaehudang*
